

고물가·얇아진 지갑에... 밸런타인데이 특수 실종

계란·밀가루 등 식재료·초콜릿 가격 상승에 소비 위축 행사·기획 상품 사라져... 디저트 판매 예년 10%도 안돼

고물가·고금리로 젊은층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광주·전남에서 밸런타인데이(Valentine Day·2월 14일) 특수가 사실상 실종됐다.

자영업자들도 지난해에 이은 소비위축에 따라 판촉 매대를 줄였고, 주 소비층인 젊은 연인들의 지갑도 굳게 닫혔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이날 광주지역 빵·디저트 상점과 마트 등을 돌아본 결과 기념일을 알리는 판촉물 등을 내세워 물건을 파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입구마다 밸런타인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기획 상품을 진열해 놓은 편의점과 제과점 등의 모습은 사라지고 기존에 팔던 초콜릿 상품만 진열돼 있었다. 매대의 크기도 단축해 졌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중형 마트는 초콜릿 등을 매대 가장 앞쪽에 배치했을 뿐 지난해처럼 홍보 문구는 따로 걸어놓지 않았다.

10년째 이곳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지운(30)씨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밸런타인 특수가 사라졌다. 예전에는 과자업체에서 선물세트와 묶음세트를 내놓기도 했는데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그래도 기념일이라 매대에 초콜릿을 올려두긴 했지만 사가는 손님들이 많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다.

서구 화정동에서 마들렌 등 수제 디저트를 판매하는 가게에서도 밸런타인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디저트업체 사장인 정모(40)씨는 "과거 기념일 시즌에는 2일간 3000여개의 디저트를 판매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300개도 채 팔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북구 중흥동에서 디저트를 판매하는 김지은(30)씨도 "평상시보다 주문은 살짝 늘었지만 그렇다고 예년의 기념일 특수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는 "케이크 위주로 판매하는 디저트 가게인 만큼 기념일 특수가 중요한데 모두 옛말이고 이제 기념일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걱정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초콜릿 등 과자류 가격이 대폭 오른데다 고물가 행진으로 소비위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계란과 밀가루 등 식자재 비용이 인상함에 따라 기념일 특수 식품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젊은이들이 쉽사리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연말 빼빼로 데이 특수의 흥행 참패도 영향을 끼쳤다.

서구 쌍촌동의 중형 마트로 초콜릿 코너를 입구에 배치했을 뿐 밸런타인 데이를 알 수 있는 판촉물은 없었다.

매니저 김모(41)씨는 "원래 업체에서도 기념일에 맞춰 행사도 하고 기획 상품도 내놓는데 이제는 없다"며 "마트 차원에서 판촉 행사를 한다고 해도 판매가 더 잘되는 것도 아니라 굳이 돈을 들여서 진열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편의점 앞에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 등이 전시돼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해놓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기념일마다 곳곳에 밸런타인데이 판촉물을 통해 소비를 촉진했지만 이제는 판촉물에 쓰이는 비용만큼도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게 상인들의 말이다. 특히 지난해 빼빼로 데이 당시 판촉매대를 벌였지만 수입이 좋지 않아 올 밸런타인 데이에 판촉매대를 줄였다는 자영업자들도 있었다.

젊은 층들도 고물가로 지갑사정이 좋지 않아 '안 받고 안주기'를 하자는 연인들이 늘고 있다.

정하라(여·26)씨는 "예전에는 남자친구와 밸런타인데이마다 초콜릿을 주고 받았지만 이제는 사회 초년생이고 취업준비생이다보니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굳이 챙기지 않는다"고 했다. 밸런타인데이 뿐 아니라 화이트데이와 빼빼로데이 등 모든 기념

일을 챙기려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김가나(여·23)씨 역시 "예전에는 가까운 마트만 가도 밸런타인데이 기념 판촉행사로 마트 한켠이 붐볐었는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다"며 "나 역시도 남자친구와 화이트데이 밤 한끼 하는 방법으로 기념일 선물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당선무효형 강종만 영광군수, 지역 언론사 기자 법정 진술 위증죄 고소

"경쟁 후보 위증 요구 자수서 보내와"

강종만 영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자신을 고발한 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강 군수는 지난 1일 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군수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강 군수의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고 강 군수의 발언에 대해 위증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검찰에서

자백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쪽짜리 '자수서'를 강 군수에게 보냈다.

자수서에는 '경쟁 후보 측이 낙선한 이후 약속한 사례금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검찰 출석 전날 2억원을 주겠다고 제차 위증을 요구했다', '강 군수는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내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려는 의도였다'는 등 내용도 담겼다.

강 군수는 "A씨의 위증 자수 사건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해 달라며 별도로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며 "검찰이 A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들

까지 수사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군수는 지난 2022년 1월 A씨에게 선거 지원을 요구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 군수는 A씨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맞으나 당시 입후보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먼 친척관계인 A씨가 어렵게 살고 있어 도움을 줬을 뿐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목포시체육회 자금 10억원 빼돌려 탕진 여직원·남편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실형

체육회 사업 어려움... 엄벌 탄원

목포시체육회 사업자금 10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도박비용으로 사용한 전 체육회 여직원과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와 B(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각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체육회 사업자금 10억 8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목포시체육회 회계 업무 담당자였던 A씨는 목포시체육회가 시행하는 생활체육교실 15개 사업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특별한 관리·감독이 없는 점을 악용

했다. 이들은 이 사업자금을 부부 명의로 이체해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도박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으로 횡령한 자금을 메우기로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처음에는 남편의 채무를 변제한 후 곧바로 횡령한 돈을 돌려놓으려고 했지만, 빼돌린 금액을 모두 써버려 반환이 어렵자 주사·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다.

A씨 부부가 빼돌린 돈은 10억원 이상이었으나, A씨와 A씨 부모 등이 일부 금액을 되돌려 놓기도 해 실제 피해액은 4억원에 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는 매월 급여 일부를 목포시체육회에 지급하고 별도로 행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들 부부의 범행으로 체육회는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생아 살해 유기한 30대 친모 징역 5년

홀로 출산하고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신생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이를 만에 길거리에서 영아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의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 조

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상태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자백했고 출생 이력 등 보장 증거도 충분하다"면서 "미혼부 상태로 출산해 양육에 부담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대법원 양형 권고형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문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온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온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